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시편 67(66),2-3 참조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제1독서 | 이사 2,1-5

화답송 | 시편 98(97),1,2-3ㄴ,3ㄷㄹ-4,5-6(◎ 2 참조 또는 3ㄷㄹ)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찬성 올려라,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찬성 올려라. ◎

제2독서 | 로마 10,9-18

복음환호송 | 마태 28,19,2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 마태 28,16-20

영성체송 | 마태 28,20 참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송영호 안토니오 신부 | 해외선교봉사국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 19-20)

하느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으시기에 불쌍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고 구원하시는지….

주님이 계시어 당신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하시니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가서 삶으로 증언하는 이들이 있으니, 이들을 외방 선교사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도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 시기에, 외방 선교사들은 오대양 육대주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머물며 복음을 수호하고, 죽음의 불안도 떨쳐내며 사랑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교구 선교 사제들 중 두 분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큰 고통을 치렀지만, 귀국하지 않고 끝까지 선교지 형제자매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박해하는 그 어떠한 상황, 설령 죽음조차도 선교사들의 복음 선포의 사명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

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도 크시기에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1,000명이 넘는 한국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은 부모와 형제, 그리고 고국을 떠나 당신 말씀에 충실하였으니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시며,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소서.’

우리 서울대교구에는 25명의 교구 사제들과, 천주교 서울국제선교회라는 외방선교회 회원들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님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전교에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선교사들과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그 별에 있듯이 그렇게 함께해 주십시오.

먹구름 속의 한 줄기 빛은 환희를 가져옵니다.

곤경에 처한 이 시간들 안에서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이사 2, 5)는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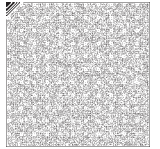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주님, 우리나라 남쪽 끝 '마라도 경당'이 보이는 바닷가에서 당신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고 말씀하신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언제나 믿고 듣고 말씀으로 선포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김문숙 요셉파나 | 가톨릭사진가회





임선혜 아네스 | 성악가



| 아버지의 손사래

“행여라도 성당 같은 데에 나갈 생각일랑은 아예들 마십시오!” 새로 이사한 집에 눌러 오신 이웃분들과 밥 한 끼, 술 한 잔 나누다, ‘이 맥은 성당에 다니시는 것 같던데... 성당은 어때요?’ 하고 물어오면 아버지가 과장되이 손사래를 치며 하시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그저 옆에서 조용히 웃으셨고요. 처음엔 깜짝 놀랐던 저도 언제부턴가는 아버지의 이 기발한 전술(?)을 스릴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직업으로 인해 여러 도시로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그때마다 한 번씩 벌어지는 해프닝이었던 것입니다.

늘 좋은 이웃을 만나 서로 현관문을 열어놓고 지내다시피 하니, 밥상에 숟가락 몇 개 더 올려 함께 식사하는 정겨운 일이 빈번했습니다. 굳이 ‘천주교’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저희 집 거실 한가운데에는 늘 십자가상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온화한 모습의 성모상과 기도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저희 가족이 매 주일이면 단정하게 예의를 갖추고 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보았고, 저녁 무렵이면 어머니와 묵주기도를 바친다는 것도 차차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일상을 알아가며 점점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고, 서로의 애경사에 진심으로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 갔습니다. 그즈음부터 어쩌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니는 성당에 대해, 신앙생활에 대해, 이런저런 솔직하고 진실된 이야기를 큰일 아닌 듯 자연스레 나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몇 해가 지나면 깊이 정든 사람들을 뒤로한 채 아쉬운 작별을 하고 저희 가족은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 적응이 될 무렵 걸려오는 전화, ‘우리 부부 입교해서 교리 공부 시작했어요! 두 분이 우리 대부, 대모 서줄 거죠?!’ 그 세례식 날짜를 달력에 체크하며 기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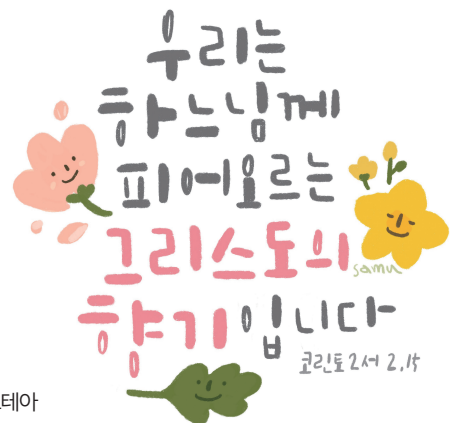
들뜬 어머니와 아버지의 환한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쩐 이번에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네!’ 몇 번이고 반복되는 이 신기한 일이 제겐 마치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집안의 종손으로 열심히 개신교 신자이던 아버지는, 친구 아버지님 상갓집에서 한 신부님이 교우들과 제사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보신 것을 계기로 개종하셨다고 합니다. 한편 옛 교우촌에서 자라며 가톨릭계 초등학교에 다녔던 어머니는 성가단원이 되었지만, 부모님이 비신자여서 세례도 첫 영성체도 할 수 없으셨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야 세례를 받고 오래 기다렸던 첫 성체를 받아모셨다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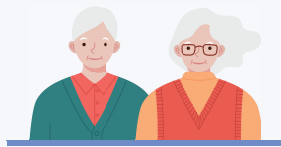
이렇게 스스로 믿음의 길을 간절히 바라고 찾았던 부모님은, 무엇이 사람을 신앙으로 이끄는지 본능적으로 아셨던 것일까요. 어쩌면 애초부터 그 무엇도 뜻하거나 걱정하지 않았기에 그 기쁨을 마치 영접절에 받은 선물처럼 느껴를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함께 즐겁고 사이 좋게 지냈을 뿐인데!’라며 말이죠.

가장 따뜻하고 보편적인 전교의 방법을 저는 귀한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를
이끄는
성경구절



양삼우 도로테아
수유동성당



노인의 날과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나라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했습니다. 원래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은 10월 1일인데, 우리나라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어서 하루 뒤인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일의 명칭을 ‘노인의 날’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날(조부모의 날)’로 기념하는 나라들도 많고, 날짜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 노인의 날과 같은 10월 2일을 ‘조부모의 날’로 지내는데, 그날이 전례력으로는 ‘수호천사 기념일’이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든 가정의 수호천사들이라 부르며 교회적인 의미도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수호천사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전달’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제자였던 티모테오에게 “나는 그대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기억합니다.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갓들어 있던 그 믿음이, 이제는 그대에게도 갓들어 있다고 확신합니다”(2티모 1,5)라고 말하며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를 통해 손자인 티모테오에게 전달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비율이 높아져 가는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서 이 신앙의 전달자로서의 조부모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올해 초 “긴 세월의 풍요로움”(LA RICCHEZZA DEGLI ANNI)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노인 사목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자들에게 “현재 세대의 부모들 다수는 조부모들이 손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적

인 양성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신앙 안에서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연결 고리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앙을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조부모들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100살의 육체에서 선택된 민족이 태어났고, 늙은 엘리사벳과 즈카르야에게서 위대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못 할 것처럼 보였던 노인들도 구원의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늙어서도 열매 맺으리라”(시편 92,15)고 말합니다.

2018년 개최된 ‘젊은이, 신앙, 성소 식별’에 관한 주교 시노드에서 사모아제도에서 온 한 젊은 참관자는 “교회는 카누고, 이 배에서 노인들은 별들의 위치를 파악하여 방향을 잡도록 도와주고, 젊은이들은 노인들과 대화하며 힘껏 노를 젓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노인들의 기억과 지혜와 젊은이들의 힘이 결합될 때 교회라는 배는 자신의 목표 방향인 구원을 향해 안전하게 항해를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노인들이 교회의 오늘과 내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인들 역시 젊은이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꿈을 꾸는 교회의 미래이기에 노인과 젊은이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노인의 날이 있는 이 10월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젊은 손자녀 세대와 함께 교회의 미래를 위해 꿈을 꾸는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양경모 대건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노인사목팀

‘서울대교구 팬데믹 대응 TF’ 신설 및 위원 임명

위원장: 정영진 신부(사무처장)

위원: 김한석 신부(관리국장), 조성풍 신부(사목국장), 이승주 신부(청소년국장), 황경원 신부(사회사목국장), 양주열 신부(통합사목연구소장), 구분영 신부(중서울지역 대표지구장), 정진호 신부(동서울지역 대표지구장), 신희준 신부(서서울지역 대표지구장), 최성기 신부(제2 서대문-마포지구장), 김종욱 신부(제6 도봉-강북지구장)

서기: 정성운 신부(통합사목연구소 부소장)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39년 10월21일 한기근 바오로 신부(71세)
- 1943년 10월23일 정규하 아우구스티노 신부(80세)
- 1950년 10월19일 전덕표 안드레아 신부(29세)
- 2001년 10월19일 김윤상 베네딕토 신부(79세)
- 2011년 10월19일 김자문 네레오 신부(63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해입니다. 2020년 11월28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교구정월일림

시복성서 기원미사

이달의 하느님의 종 ‘이육희’ / 문의: 02)2269-0413
 때: 매월 셋째주(화) 10월20일 오전 11시(156회)
 곳: 서소문성지지역사박물관 B2 성 정하상 기념경당

소방사목 선교봉사자 모집

내용: 교육과정 수료 후 파견
 대상: 건진받은 60세 이하의 교우
 문의: 02)727-2078, 010-4799-2078 직장사목팀

2021~2022년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봉사자 모집

분야: 진행팀(교육 전반 운영에 협력)
 때, 곳: 첫째주 또는 셋째주(토), 서울대교구청(명동)
 접수: 신청서(사목국 홈페이지 참조)를 작성하여 10월31일까지 이메일 접수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이명수 도자전: 1전시실
 유은혜, 여숙현, 하지연 도자전: 3전시실
 전시일정: 10월21일(수)~26일(월)
 김희준 조각전: 2전시실
 전시일정: 10월21일(수)~11월2일(월)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지구별 상담소: 5지구(노원성당), 9지구(천호동성당), 13지구(삼성산성당), 17지구(화곡분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 / (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 / (월~금) 10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 지원 대상자 공모

목적: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연구 지원
 부문: ① 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② 학술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신청기간: 10월14일~12월14일
 접수방법: 우편 또는 전자우편(cafl@cbck.kr)
 문의: 02)460-7533 주교회의 평신도기금운영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인준단체 일림

모임

혼인성소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신·구약 성경 완독 피정(8박9일)

때: 11월6일(금)~14일(토), 11월27일(금)~12월5일(토)
 문의: 010-3340-0201 도미니코 피정의집(형성)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원 무료 피정

때: 11월6일(금) 13시30분~17시 / 문의: 02)929-2977
 곳: 가톨릭회관(전철 4호선 명동역) / 지도: 양창우 신부

제주 성지순례 3일

때, 곳: 10월30일~11월1일·11월13일~15일·11월23일~25일·12월7일~9일, 제주성지 7곳(신부님 성지 해설) / 한국성지167완주 순례 모집
 문의: 064)805-9890 가톨릭사회경제연합 사회적협동조합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내용: 효소단식으로 몸속에 쌓인 독소·노폐물·체지방을 없애고 성체신심 세미나를 통해 성체신심의 은혜를 재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영육 간의 건강과 자연치유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피정
 때, 곳: 10월23일(금)~26일(월)·11월13일(금)~16일(월)·11월27일(금)~30일(월), 성 도미니코수도원(수유동)
 문의: 010-9363-7784 신 글라라
 피정지도: 노경덕 신부(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82차	11월6일(금)~14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83차	11월27일(금)~12월5일(토)	

어르신 사발 피정 ‘죽음-웰다잉(선종) 강의’ 미사

곳: 노인복지위원회 성모노인쉼터(주최, 종로3가 창덕궁 앞) / 문의(접수): 02)766-7370

죽음(선종)	10월27일(화) 10시~13시
심판·지옥·연옥·천국·성체·성모님	매월 셋째주(화) 10시~13시

젊은이 가을 심 피정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 회비: 5만원
 때, 곳: 10월30일~11월1일(2박3일), 라베르나기도의 집(명창)
 문의: 010-5313-0241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렉시오 디비나 피정(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 유덕한 아바스와 함께하는 자연 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때, 곳: 매주(토) 14시~(일) 14시,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회(주최, 경남 고성군) / 문의: 010-2816-1986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수시 가능 / 접수: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입학생 모집

기숙사 학교 / 기간: 단기(1년)·장기(1년 이상)
 대상: 초5~고1 /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시스미나움악원 회원 모집 / 문의: 02)363-2258

평화방송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의 성가발성
 오전반 (화, 금) 11시 오후반 (화) 19시30분(주1회)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10월·11월 특강

주제: 기도-하느님과 나(10월), 두려워 말라(11월)
 때: 매주(금) 15시30분~16시30분
 곳: 성 정하상 기념경당 / 문의: 02)3147-2402

10월23일	마진우 신부	10월30일	조명연 신부
11월6일	김민호 신부	11월13일	유수일 주교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1년 전기(주간) 신입생 모집

1차 전형 원서접수: 10월19일(월)~29일(목) - 전형일 11월14일(토) / 2차 전형 원서접수: 11월23일(월)~12월3일(목) - 전형일 12월19일(토)
 문의: 02)705-8668(http://gsot.sogang.ac.kr)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박사	신학(교의·조직 / 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실천·정책·행정)
석·박사 통합	신학, 가톨릭사회복지학

성물조각 · 영성가구 교육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d04 / 문의: 010-5234-5044

예비자 통신교리(우편 · 사이버 · 신자재교육)

주소: 서울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회비: 1만원 /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cdcc.co.kr

복음화학교 141기 온라인 수업 2주차

복음화학교 141기 1단계 온라인 유튜브 수업(비공개)에 초대합니다 / 문의(수강신청): 02)2096-0410, 0411 새천년복음화사도직협회 복음화학교 교육국
개강: 10월12일(월) 10시·10월14일(수) 19시·10월15일(목) 14시

바오로딸 이콘 코스 / 문의: 010-7496-1610

강사: 양희진 작가 / 회비: 50만원
때: 10월23일 매주(금) 14시~17시(10주)
곳: 바오로딸 혜화나무(주최) / 계좌: 기업은행 005-116491-04-019 (계)천주교성바오로딸수도회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2021년 전기)

모집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 입학전형: 11월30일(월) 14시
원서접수: 11월2일(월)~13일(금) 17시
문의: 02)2258-7076 대학원교학팀, 02)2258-7107 친교실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 · 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주1회·12주) / 교육문의: 010-9040-8306, 010-2511-6845(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안내

더불어 행복한 삶을 위한 상호문화 대안교육
원서접수: 10월26일~11월20일
학교설명회: 10월24일(토) 14시, 본교 시청각실
상세 전형 일정 학교 홈페이지 참조
학교설명회 참석 및 입학 문의: 061)432-9241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바라지 신입생 모집

대상: 학교 밖(학업중단·위기) 청소년(중·고등학교생)
검정고시교육, 대안교육(인문·목공·제과제빵·바리스타·뷰티·3D프린팅·도예 등), 문화자립교육, 진로탐색 및 상담, 동아리활동 / 블로그: https://blog.naver.com/baragee2016
지원교사모집: 검정고시 교과 멘토링, 탁구 동아리 지도
곳: 살레시오 미래교육원(주최, 신월3동) / 02)2691-6543

모집

재속전교가르멜회 회원 모집

전교가르멜수녀회의 은사에 따라 관상과 활동으로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평신도
문의: 010-5399-3371, 010-9068-7346

미사

마재성지 '수험생과 가정을 위한 미사'

때: 수험능력 시험일(12월3일)까지 원하는 날짜, 기간만큼 봉헌 가능합니다 / 문의: 031)576-5412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내용: 강의, 미사, 성체조배, 고해성사
때, 곳: 10월19일(월) 13시~15시30분, 가톨릭회관 2층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인내

카타리나 피집집 / 문의: 010-9715-1203

곳: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회성) / 개인, 자체 취사

꼬메스영성상담소

영성으로 가는 길, 그 길을 만나면 쉼과 회복이 있습니다
대면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모두 가능(주1회)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제7회 가톨릭영화제(가톨릭평화방송 방영)

때: 10월29일(목)~11월8일(일)
방영 일정은 홈페이지(www.caff.kr)에서 확인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무료 심리·놀이 치료

대상: 가정폭력피해자 및 가족(한부모가정 우선함)
개별상담, 가족상담, 놀이치료
회비 없음(해피빈·KT&G 지원)
문의: 02)2202-7806(cafe.naver.com/jscounseling)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상담팀

언어상담, 매체상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 종합심리검사 /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운영: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서울시 위탁)
회비: 언어상담 20회 10만원, 매체상담 20회 60만원, 종합심리검사 15만원 / 문의: 02)2051-3743
카카오채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상담팀' 검색 후 채널 추가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휴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바랍니다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일 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정서·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섭식장애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 갈등과 문제, 대인관계부적응 등

성라파엘심리상담소

때: (월·일) 주말상담 / 070-4248-7573, 010-3008-4627

가족세우기	매주(토·일) 슬기로운 부모생활
전문 심리치료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 및 가족 개인(분노·우울·불안·부적응) 종합심리검사 / 비대면 화상상담 가능

강서푸드뱅크 · 마켓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방법: 후원금, 식자재(쌀·라면·조미료 등) 및 생활용품 / 후원문의: 02)2635-1377, 02)2663-1377
후원금 계좌: 신한 100-026-821055 강서푸드뱅크마켓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롤자비외수녀회)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동기회 통일가원 미사

주례: 신회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권순기 회장
때, 곳: 10월27일(화) 14시, 서울대교구 양천(지)성당

햇살 학부모 상담전화(햇살사목센터)

자녀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님의 상담을 받습니다
운영시간: 매주(월·목) 10시~13시 / 상담전화: 02)744-0841

전화로 하는 심리상담(평화심리상담소)

코로나 블루 영향으로 불안하고 지친 마음을 이해, 공감받고 싶은 누구나 / 문의(접수): 02)775-4831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공황, 불안, 우울, 가족, 부부, 여성
소장: 이찬 신부(골롬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문의: 010-9295-5912 / 홈페이지: www.dstcoun.net

직원모집

잡원동성당 사무원 모집 / 문의: 02)595-2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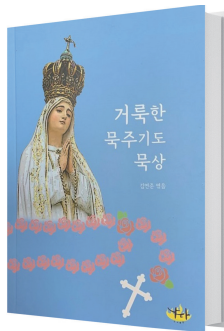
인원: 사무원 1명(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로 사무행정, 회계업무, PC(엑셀 등) 가능한 분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1차 합격자 개별 통보)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0월28일(수)까지 우편·방문(우 06520,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110 잠원동성당 사무실) 접수

반포1동성당 관리인 모집 / 문의: 02)517-6242

분야: 관리인(계약직)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되신 분(방화 관리자, 소방 안전 및 가스 전기통신, 시설물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경험자 우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합격자 개별 통보)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0월25일(일)까지 이메일(stephanus222@seoul.catholic.kr) 접수 및 방문·우편(우 06542, 서울시 서초구 주홍 1길 6(서초구 반포1동 742-22) 천주교 반포1동성당)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매월 넷째주(토) 15시~(일) 13시	서울 분원(장충동)	010-8353-2323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회 수도원	수시	수도원(경남 고성)	010-5301-1309
예수고난회	11월7일(토) 18시~8일(일) 11시	수도원(돈암동)	010-6804-4904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수시	수녀원(청주)	043)295-5940(cpnunskorea@catholic.or.kr)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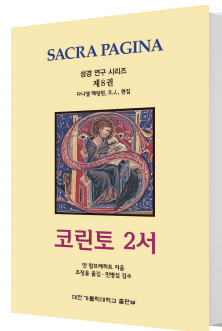


신간

거룩한
묵주기도 묵상

김연준 지음
도서출판 나다 | 125쪽 | 5천원
문의: 010-7581-6771

성경과 가톨릭 교회교리서, 교회의 서적들을 참고하여 저자 개인적 묵상을 통해 성모님께서 직접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네개 신비의 해설을 완성했다. 이 책을 통해 신비의 내용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고, 염경과 묵상 그리고 관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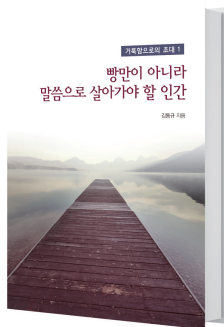


신간

코린토 2서

안람브레히트 지음
기쁜소식 | 406쪽 | 2만5천원
문의: 02)762-1194

코린토 2서는 바오로의 서간들 중 가장 개인적인 것으로 흔히 간주된다. 이 서간은 바오로 입장에서 그의 직무에 대한 계속적인 성찰이다. 코린토 2서의 신학적 중요성에 대하여 관심 있는 이들과 학문적인 추구나 강론 준비를 위하여 신중한 주석에 임하는 이들 모두에게 소중한 책이 될 것이다.



신간

빵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인간

김동규 지음
기쁜소식 | 108쪽 | 8천원
문의: 02)762-1194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세 가지 유혹은 우리 인간이 태초부터 받아 왔으며 지금도 받고 있는 모든 유혹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광야의 유혹을 통해 우리가 받을 유혹이 무엇이며 예수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을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란다.



신간

복음화(상, 하)

이기우 지음 | 함께가는길
상 364쪽 하 368쪽 | 각 1만3천원
문의: 02)6271-2900

저자가 가톨릭 신학의 안내에 따라 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복음서를 읽고 그 읽은 바를 전한다. 신자들에게도 성경과 신학에 관한 교양은 매우 필요하다. 신앙을 유아적인 수준에서 머물게 하지 않고 성숙시키자는 뜻에서 성경에 관한 전문서적을 읽고 풀어나간 사목적인 성경해설서다.

YouTube

가톨릭튜브

유튜브 검색창에 "가톨릭튜브"를 입력하세요.



황스토랑 보기



매주 토요일 업로드

황스토랑

숨겨 두었던 신부님, 수녀님의 깜짝 요리 비책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영성의 참맛, 신앙 맛집! 황중호 신부의 '황스토랑'에서 소박하지만 풍성한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PI. 튀기면 신발도 맛있다고 하는데,

감자튀김의 새로운 반전 레시피는 무엇?

EP2. "버릴 게 없다" 백신부님의 독특한 장아찌

이 영상 외에도 '성경 속 풍속', '탈출기', '마르코', '지혜문학', '사제의 첫마음', '요한복음', '클클뮤직', '황중호 신부의 고고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소중하고 확실한 행동수칙



거리를
확 띄워요!



어디서나
확 써줘요!




비누로
확 씻어요!

30초 이상



옷소매로
확 막아요!

휴지·손수건도 OK



밀폐·밀집·밀접
확 피해요!



감염병 궁금할 땐
전화해요!

1339

2020.09.30

● 코로나19에 따른 본당 운영 지침 안내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상설 고해성사, 본당 제 단체의 모임과 회합, 외부 대관행사는 '계속 중단'됩니다.

◆◆ 기부 전서 ◆◆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 기금

누계 : 1,843,099,203원

본당 사무실에서는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에 봉헌될 기부금을 '기부 전서'라는 이름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봉헌하신 기부금은 사무실을 통해 일괄 서울대 교구로 전달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명동대성당 평일·주일미사 시간 (9월 5일부터 적용)

요 일	미사시간
월~금	10:00, 18:00
토요일	10:00, 18:00, 19:00(늘푸른청년미사)
일요일	7:00, 9:00(영어미사), 10:00, 11:00 12:00(교중미사) 16:00, 17:00, 18:00, 19:00(청년미사)

※상기 모든 미사는 '대성전'에서 봉헌되며, 미사 시간 외에는 대성전을 폐쇄합니다.

※토요일 오후 6시·7시 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교우분들의 안전한 귀가와 성전 방역 작업을 위해 일요일 오후 9시 미사는 당분간 재개하지 않습니다.

※체온 측정과 신원 확인 등의 사전조사 후 이상이 없을 시에만 미사 참여 가능합니다.

※사회적인 거리 유지를 위해 미사 한 대의 참여인원은 250명 내외로 제한됩니다.

※주일미사 참여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적사항을 작성하실 때 '전체 차량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성당 개방 시간 ☞ 월~토 : 09:00 ~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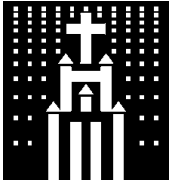
☞ 일요일 : 06:00 ~ 20:00

● 미사 시간 재편에 따른 본당 사무실 업무 시간

요 일	근무시간	비 고
화~금	09:00~19:00	평일(화~금) 점심시간 [12:00~13:00] 사무실 폐문
토요일	09:00~20:00	
일요일	07:00~20:00	

● 성당 내 음식 및 음료수 반입 금지

성당 안은 하느님께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장소입니다. 성당 안에서 음식물과 음료 등을 섭취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며, 특히 영성체 한 시간 전에는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 신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공복재)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성전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행위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학교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보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 하반기 건진성사 》

- 10월 25일(주일) 오후 2시 / 대성전
- 주례 : 손희송 베네딕도 총대리주교님

※안전을 위해 오후 2시 미사는 건진 당사자와
대부모님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교우분들
께서는 다른 시간 미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첫 고 해

지난 2월과 6월, 7월, 8월, 9월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첫 고해성사가 아래 일시에 있습니다.
첫 고해성사 대상자분들께는 개별 연락을 드려 고해
성사 전 집합하실 장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 10월 20일(화) 오후 7시 30분
※고해성사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2021년도 명동대성당 혼인 예약 안내

·1월~2월 ☞ 7월 29일(수)부터 선착순 방문 접수 중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주일 내방 요망)
·3월~12월 ☞ 10월 23일(금) 오후 2시
‘대성전’에서 추첨!

혼인장소	요일	시간
대성당	금	13시
	토, 공휴일	12시, 15시
파밀리아 채플	토, 일, 공휴일	11시, 14시, 16시

·필수준비사항 : ① 교적증명서 1부 (신랑,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 50만원 (현금 또는 수표)

- ※예약금 납부는 계좌이체 · 카드결제가 불가합니다.
- ※본당 홈페이지(www.mdsd.or.kr)→혼인성사 안내에
게시된 ‘혼인 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추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추첨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해 주십시오.
- ※해외에 계신 분들(한인성당 교적자 제외)은 본당
신부님으로부터 혼인성사를 받기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 오시고, 이를
혼인 추첨 당일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추첨 이후 혼인예약 현황은 11월 4일(수)부터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교 주일 2차 헌금

오늘은 연중 제 29 주일이자 전교 주일로, 물질적
· 영적 궁핍 속에서 살아가는 선교지역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위령의 날 미사 》

11월은 「위령 성월」로서 주님의 자비에 맡겨진
죽은 모든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
입니다. 11월 2일(월)은 「죽은 모든 이를 기억
하는 위령의 날」로, 당일 모든 미사는 세상을
떠난 조상, 가족, 은인들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위령미사에 미사 지향 접수하실 분
들은 11월 1일(주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접수
하시거나 당일 합동 위령미사 시작 전, 제대 앞에
마련된 봉헌함에 직접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합동 위령미사 ☞ 오전 7시, 10시 / 오후 6시

2020년도 교무금 책정·납부 및 연말정산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제출 안내

2020년 10월 1일(목) 기준, 명동에 교적을 두고
있는 전체 19,318세대 가운데 교무금을 책정하신
세대수는 2,857세대로 전체 대비 14.78%밖에
미치지 못하며, 책정하신 세대 중 실제로 교무금을
납부하고 계신 세대수는 2,366세대로 이는 전체
대비 12.24%에 불과합니다. 2020년도 교무금
책정을 아직 못 하신 교우들께서는 본당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책정·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경우 교무금 책정을 먼저
하고 이체하셔야만 장애(납부자 확인불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본당 사무실과 국제청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필히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성당 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신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는 작성일 기준 5년까지 유효합니다.

- ※과년도(2017년~2019년)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신 분들은 제외
- ※2016년에 작성·제출하셨던 분들은 다시 작성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10/5-10/11).....21,361,000
 - 연중 제 28 주일 헌금.....14,064,920
 - 감사헌금 (10/5-10/11).....1,526,000
- 김 바오로 / 도 로사 / 배 요한 / 신 레오니아
이 대건안드레아 / 임 사무엘 / 장 바드리시아
최 마리아 / 최 안나 / 하 바틸다
황 크리스티나 / 익명(1)